여기 사람이 있다
3호
2009.2.7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mbout.jinbo.net 02-795-1444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수사조작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의 법이 부자들만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입증이라고 하듯 엉터리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PD 수첩에서 경찰과 용역이 긴밀하게 '합동작전'을 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폭로하자 '그 자리에 없었어서 잘 모른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니, 2월 6일 예정되어 있던 검찰 공식 수사발표를 9일로 미루며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다면 참상의 현장에 있었던 전철연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생생한 증언들을 무시하며 김석기 청장과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조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살인 진압 작전의 승인자인 김석기 청장은 유례가 없는 광폭한 작전을 승인해 놓고는 무전기도 꺼놓은 채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무책임함에 분노가 커질 뿐입니다.

김석기 청장 구속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TV토론에서 전철연을 "폭력단체"로 몰아붙이고 "(김석기)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라며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이 어려움을 돌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 참사로 인한 비난여론을 '김석기'라는 방패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방어하다 일정한 시점이 흐른 뒤 사퇴 카드를 꺼내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꼼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용산 참사는 지난 여름 촛불들이 가장 자주 외쳤던 구호가 왜 "명박퇴진"이었는지 잘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그동안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속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종부세 폐지, 강부자 내각,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방송장악 기도, 대운하 강행, 경쟁몰입교육 등이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용역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망루로 피해간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살인 진압으로 처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명박 정권의 친부자 정책이 불러온 것이기에 김석기 청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그 최종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추모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퇴진"을 외쳤던 것입니다.

"명박 퇴진"

이명박 정부 1년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몹시도 버겁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낸다면 이후에는 더욱 끔찍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아무 죄 없는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다 죽임을 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쫓겨나야 하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서민들을 죽음으로 대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대로라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서민 죽이기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명박 정권에 맞서야 합니다.

용산참사 막말 5인

신지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게 무슨 생존권 투쟁인가? 이거는...반대한민국 단체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행된 도심테러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개발하는데마다 돈 내라고. 이래서 그 떼잡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 오늘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전 법과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불법 농성, 특공대 투입은 당연... 보고만 받았다. 무전기 꺼놨다...

이명박

우리사회는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용산문제는 먼저 조사하고 조치하면 된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지 마라!

신문20090206.indd 1 2009-02-07 오전 12:5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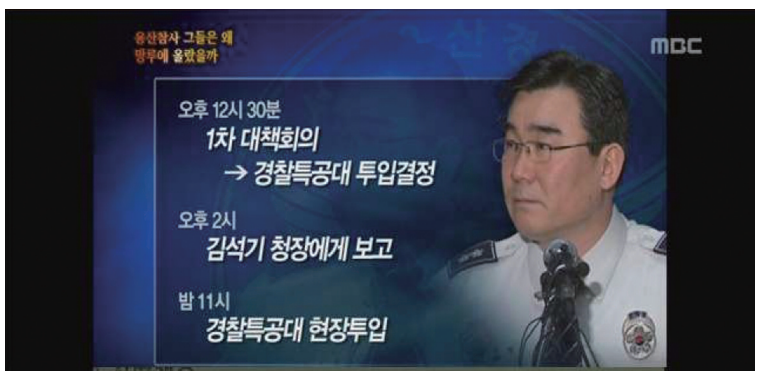
왜곡-편파수사로 일관하는 검찰! 그들은 학살만행의 공범

생존의 벼랑을 내몰린 국민을 학살하는 공권력의 사슬이 끔찍합니다. 진상 규명은 나 몰라라 하며 정부와 경찰을 감싸기 급급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밝혀내지 않는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없는 정권의 하수인일 따름입니다.

전경들의 보호를 받으며 물을 쏘는 용역직원

경찰이 망루기둥을 뽑아 위층에 보관중이던 시너통이 넘어져
시너가 망루 아래층으로 흐름

망루 아래층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보내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



경찰이 경찰특공대 투입시간을 밤 11시라고 했지만
내부 문건에는 오전 9시경 2개제대 출동지시

경찰특공대가 건물로 투입되고 난 뒤
POLICIA라는 방패를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용역들

건물 밑에서 농성자들을 약올리고 있는 용역들

이 사람들이 정녕 테러리스트로 보입니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8대 의혹

▲ 망루에서 탈출한 지석준씨와 이성수씨. 지 씨는 추락하였지만 이 씨는 시야에서 사라진 후 사망하였다. 왜?

첫째,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생존했던 사람이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돌아왔는가?

부상자 지모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사망한 고 윤용헌씨와 고 이성수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윤용헌씨와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MBC가 방영한 자료와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도 지모씨의 진술은 그대로 사실임이 드러난다. 지모씨가 말한 상황대로 옥상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부상당한 지모씨와 고 이성수씨는 베란다에서 목격되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던 고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아있던 사람이 왜 죽어서 발견되었나.

둘째, 검찰은 왜 용역업체와 경찰 공동진압 사실을 부정하는가?

용역 직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경찰의 진술은 결찰 무전기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착수가 시작되었으나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폐타이어에 불을 붙였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그 흔적이 없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없다"고 밝히며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용역직원들이 물대포를 쏘고 사제방패를 들고 진압행위에 가담한 장면이 사진자료를 통해 공개된 직후, 경찰은 이를 사실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증거자료만을 통해서도 진실은 밝혀지는 상황이다. 철거민들의 진술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경찰과 용역업체의 진술을 기정사실화 하는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이며, 건설사와 조합의 편에서 세입자 죽이기에 동참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 주민을 폭행, 위협하여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만행은 결국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셋째, 김석기는 책임이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보고만 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넷째,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다? 도대체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섯째, 경찰특공대 투입, 강경진압은 정말 불가피했는가?

경찰은 대테러 진압용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강경진압을 펼쳤다. 그 이유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화염병, 염산병, 시너가 난무해 도저히 묵과 못 하는 상황이어서 검거 이전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주변 상가와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골프공을 발사한 것이 특공대 진압의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 시작 불과 3시간 30분 만에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상인들은 19일 농성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경찰 측의 협상과 설득방송은 물대포 발포 이전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유족 동의도 없이 24시간도 안 되어 시신을 부검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검을 진행할 때에는 항상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부검을 강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변사체는 유족 동의 없이 부검할 수 있다는 법 조항만 내세우지만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고 유족이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서둘러 부검을 실행하여 시신을 훼손한 점은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고 이상림열사의 유품으로 본인의 신원이 확인되는 공문이 불에 그을린 채로 발견된 상황임에도 신원확인을 위한 부검절차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곱째, 안전장치는 왜 하지 않았는가? 구조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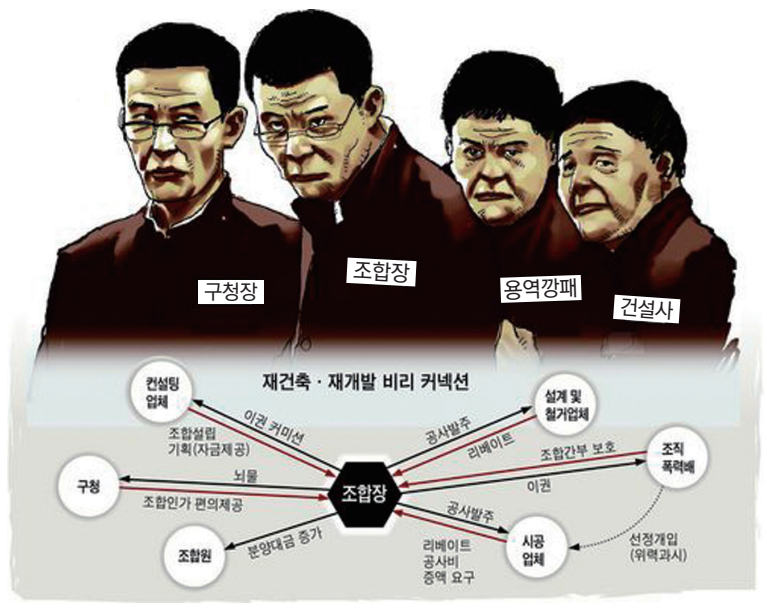
경찰은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 부상당한 농성자들을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망루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김 모씨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건물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천 모씨와 김 모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폭력에 시달리고 아픔을 호소했으나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이상 방치되었다. 경찰은 구조의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철거민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녕 경찰은 세입자철거민은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는단 말인가?

여덟째, 1차 발화 이후 2차 발화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왜 진압을 멈추지 않았나?

불은 두 번 났다. 20일 7시 5분경 망루 3-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 특공대를 1, 2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망루 안이 화약고와 같은 상황임을 경찰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공대는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2차 발화까지 약 20초의 시간동안 경찰 특공대가 진압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더라도 6명의 무고한 목숨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 재앙을 불사한 죽음의 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경찰은 철거민 모두를 죽일 셈이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라!
강제철거 살인폭력 용역깡패 해체하라!
왜곡편파수사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

그들만을 위한 재개발 커넥션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연대를 배후세력의 개입이라 말하는 그들.
3자 개입 금지를 운운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들만을 위한 확고한 개발연대를 이루어 왔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 등의 건설자본과 대지주조합,
그리고 용역깡패와 용산구청 간의 핏빛 재개발 커넥션이 결국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 만을 위한 배후의 실체는,
가진 자 만을 위한 막개발 정책을 밀어부친 이명박 정권이다.

“한 번만 사랑한다고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던 우리 유가족들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촛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참혹한 일이 우리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는 일이기에 우리 유가족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보통 장례는 3일장을 치루는 데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유가족들 모두 잠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만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조문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유가족 모두 집회란 곳에 처음 나와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용산 4지구에서 30년 가까이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시던 평범한 한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흔을 넘기시며 식당을 호프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우리 3남매의 막내부부가 호프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년 전입니다. 막내 동생이 바로 용산 4지구 철대위원장으로 얼마 전 구속된 이충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장사를 막내 부부에게 맡기셨지만 매일 새벽 가게 주변을 청소하시는 등 가게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손길이 묻었던 깃이니 오죽하셨겠어요.

재개발을 한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용역회사 직원들이 가게를 빨리 비우라며 가게 앞에 쓰레기를 한가득 부어놓기 전까지, 용산구청에서 “생떼거리”를 쓴다며 아버지를 문전박대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상하시고 따뜻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집 한칸 마련하지 못한 사글세 신세였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 몬 것입니까?

▲ 故 이상림 열사의 유족(딸 이현선과 부인 전재숙)들이 오열하고 있다.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용역깡패의 폭력을 피해 옥상망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수천도의 화염에 휩싸여 돌아가셨습니다. 무릎 뼈가 다 으스러진 우리 막내는 목발을 집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참사 이야기에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동문서답을 하시더군요. 말이 좋아 법이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30년 동안 장사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서민들 쫓아내고 비싼 아파트 지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재벌 기업들을 위한 법, 용역깡패들이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퍼붓고 가게 담벼락에 시뻘건 페인트로 목 매달린 시체를 그려놓아도 내버려 두는 법, 우리 아버지들의 시신을 우리 유가족들이 한 번 보기도 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부검하고 난도질 하고도, 검사가 법대로 한 일이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법, 국민 다섯 명을 죽이고도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 그런 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범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 철거민들만 구속시켰습니다. 모든 책임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 아버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열두 번 넘게 사랑한다고 두 아이에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 마디 사랑해요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딸 현선 드림

* 글 전문은 범대위 홈페이지(http://mbout.jinbo.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첫째,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촛불추모대회에 참여합시다.

가슴에 근조리본을 달고 국화꽃을 들고 모입시다.

둘째,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시다.

순천향병원 또는 용산 참사현장에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mbout.jinbo.net 접속하여 인터넷 분향 참여 및 추모 댓글 남깁시다.

셋째, 청와대 및 경찰청에 항의 글을 남깁시다.

살인 만행을 자행한 경찰과 정부에 항의합시다.

넷째, 추모와 규탄 행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참여합시다.

후원계좌_ 농협 067-02-302163 (예금주: 이종회)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http://mbout.jinbo.net | mbout@jinbo.net | 전화 02-795-1444 | 후원계좌 067-02-302163 (농협중앙회, 이종회)